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련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삼시다.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 서적을 읽으며 함께 모여 공부하던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 가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이벽, 권일신 등 함께 공부하던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1784년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이 해를 한국 천주교회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 234년의 역사를 지닙니다. 비록 짧은 역사지만 한국 교회는 특히 초기 역사에 있어 놀랍고 자랑스러운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교회는 우리 선조들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여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구도자들에 의해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이며 은총입니다.

둘째,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기초가 다져지고 자라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양반들이었지만 차차 일반 백성에게, 그리고 천민이라고 불리던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다른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교회에서 제사를 미풍양속이 아니라 미신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할 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제사

를 거부하였으며 이것이 박해의 또 다른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비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 지 6년 후에는 신자수가 4천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기 신자들은 한동안 사제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제 없이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사제를 영입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북경교구에 속하게 되고, 1795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은밀히 서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11년 만에 사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6년 후인 1801년 신유년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주문모 신부와 3백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복음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신자들은 피난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해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사제를 영입하기 위해 힘을 쏟았는데 앞장서서 애쓴 이가 바로 정하상 바오로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는 사제를 영입하기 위해 중국 북경을 아홉 차례나 내왕하였으며, 교회 부흥 운동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실로,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께서는 조선 교구를 설정하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모임인 파리외방전교회에 한국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47년만입니다. 그리하여 1836년 프랑스인 모방 신부가 입국하여 한국인 사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바로 그해 김대건 등 세 명을 뽑아 사제의 길을 견도록 중국 마카오로 보냈습니다. 그후 앙베르 주교와 프랑스인 신부들이 입국하였으나 박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초기 50년 동안은 중국인 신부가 잠시 사목활동을 했을 뿐 1836년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이 입국할 때까지 사제 없이 평신도들만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중국인 신부, 그리고 파리외방전교회 주교와 신부들이 있었다 해도 다들 외국인이고 박해 시기였으므로 평신도들의 협력이 없는 활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기초가 다져지고 자라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자라난 교회입니다. 초기 약 100년간 크고 작은 박해가 지속되었는데 그 중 전국적인 큰 박해가 네 번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은 만여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분들 중 103분이 성인으로, 124분이 복자로 선포되었으며 지금도 시성 시복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같이 자랑스러운 초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03위 순교 성인들의 축일인 오늘, 특히 평신도 순교 성인들의 신앙을 되새겨 보고 본받도록 합니다.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신앙을 목숨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고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는 순교 정신만큼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평신도 희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대 우리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실지 생각해 보고,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기쁘고 떳떳하게 삽시다.

강구 본당 이성길 프란치스코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셨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한국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285번 '103위 순교성인'

본기도

†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지혜서 3장 1절-9절

안 내 : 지혜서 저자는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의인들의 고난과 시련이 파멸로 보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화답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2독서 : 로마서 8장 31절-39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죽음도 삶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전합니다.

묵 상 : 하느님은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 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편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9장 23절-26절

강 론 :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삽시다.’(1-3쪽)

예물준비성가 :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 183번 ‘구원을 위한 희생’, 159번 ‘세상의 참된 행복’

영성체 후 묵상

참된 삶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꽃길보다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단련이
고통과 파멸로 보여 집니다.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불사의 희망으로 참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십자기를 기꺼이 지고 가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3번 ‘순교자 찬가’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03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9월 30일(연중 제26주일) 계림동 본당
- 10월 7일(연중 제27주일) 의성 본당
- 10월 14일(연중 제28주일) 모전동 본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9월 29일, 10월13일,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순교자 성월 기념

변지안(아녜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까?"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고사리> 제주문화원형 스토리 공모전 대상

■ 열린성경강좌 6

- 일시 : 10월 15일(월)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안계 본당 주임)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일시 : 9월 30일~10월2일, 10월4일~7일, 10월10일~12일, 10월16일~19일, 10월24일~26일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문의 : 064-796-9181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 수시 1차 모집 : 9월10일~9월28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교구 레지오 마리에 도입 60주년 감사미사

- 일시 : 10월 3일(수) 13:00~16:30
- 장소 : 안동대학교 솔뫼 문화관
- 대상 : 레지아 산하 모든 단원
- 문의 : 010-8851-4467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화) 09:00~16:00
- 장소 : 안동시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전용구장
- 신청 : 9월20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참가비 : 팀당 8만원(점심 및 간식)

■ 꾸르실료 율레미사

- 일시 : 10월15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M.E 제40주년 가족모임

- 일시 : 10월20일(토) 10:00~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ME주말을 수강한 사제, 수도자, 부부
- 문의 : 임효균(제노비오) 010-3528-2370

■ 1일 영성피정

- 일시 : 10월20일(토) 10:00~17:00
- 장소 : 계림동 성당
- 강사 : 김현조 스테파노
- 회비 : 5천원
-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구민들이 안동교회사연구소의 「안동교회사연구소 자료집 7 - 간추린 【안동교구 年譜】: 1726-현재」(2014년)를 통해 지난 교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1] 여명기에서 조선교구까지 : 1726-1910

◆ 1784년

▶ 2월 24일 이승훈이 북경의 천주교 북당(北堂)에서 알메이다(J. B. d'Almeida 索德超, 1728~1805)신부를 만나고, 예수회의 그라몽(楊棟材, Jean Joseph de Grammont)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洗禮)를 받다.

▶ 3월 이승훈이 북경에서 수십 종의 교리서와 십자고상, 성화, 묵주, 그 밖의 진기한 물품들을 받아 돌아오다.

▶ 3월 이승훈이 귀국하여 조선 천주교 창설의 중심인물이 되다.

○ 이벽은 이승훈에게서 천주교 책을 받아 집 한 채를 빌려 나오지 않고 공부하여 후에 그의 친구들인 최창현(崔昌顯, 요한 1754~1801순교), 최인길(崔仁吉, 마티아 1765~1795순교), 김종교(金宗敎, 프란치스코 1754~1801순교)에게 선교하다.

▶ 11월 25일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관구장 드 방따봉 신부가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승훈의 세례에 대한 내용을 적다.

▶ 11월 이기양이 충청도 문의현감으로 부임하는데 이존창이 배행하다. 이때 순암 안정복(安鼎福)이 권철신에게 보낸 편지에 「사흥(士興, 李其讓)이 ‘칠극(七克)’을 빌려와 다시 본다고 합니다.»라고 하다.

▶ 겨울 최창현(崔昌顯) . 정약중(丁若鍾) . 정약용(丁若鏞) . 김종순(金宗淳) . 최인길(崔仁吉) . 권일신(權日身) . 신여권(申與權)이 서학서(西學書)를 읽다.

○ 수표교 앞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정약전(丁若銓) . 다산 정약용(丁若鏞, 사도 요한, 1762~1836) . 이암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과 최창현(崔昌顯, 요한) . 김범우(金範禹, 토마스) .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 . 흥낙민(루카)가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다. 많이 망설이던 장남 권철신(權哲身, ~1801)이 훨씬 후에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하다.

○ 신앙 집회 장소를 명례방 김범우의 집으로 옮긴 뒤 매 주일 신자들이 모이다.

○ 윤지충(尹持忠)이 서울에서 김범우(金範禹)에게 『天主實義(천주실의)』, 『七克(칠극)』, 『十誠(십계)』를 빌려보고 권철신으로부터 세례를 받다.

○ 이가환(李家煥)이 이벽을 설득하기 위해 사흘 동안 토론한 후 이기지 못하고 1785년까지 천주교에 접근, 조상제사(祖上祭祀) 문제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다.

○ 이기양이 이벽과 토론을 하고 물러섰으나 천주교를 믿지는 않았다.

○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허검이 이승훈에게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다.

◆ 1785년

▶ 1월 3일 서울 명례방(明禮坊, 진고개, 지금의 明洞) 장악원(掌樂院) 앞에 있던 역관(譯官) 김범우(金範禹, 토마)의 집에서 주일행사(主日行事, 지금의 公所禮節)를 하다가 형조의 순라군(巡邏軍)에게 발각되어 형조판서 김화진(金華鎭 1728~1803)에 의해 심문을 받다. 즉 을사주조 적발(乙巳秋曹摘發)사건이 나다. 이벽 · 이승훈 · 정약전 · 정약종 · 정약현 형제와 권일신 부자 등 명문가의 자손들은 훈방되고, 중인 신분인 김범우는 단양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선종(善終)하여 조선천주교회사에서 첫 순교자가 되다. 이 때 권일신이 아들 권상문 · 이윤하 · 이충익 · 정섭 등과 형조에 가서 사령들이 압수한 성상(聖像)을 돌려 줄 것을 청하다. 이동욱(李東郁, 이승훈의 父親)은 문중 일족(門中一族)이 모인 자리에서 이승훈이 북경에서 얻어온 『천주실의』, 『기하원본』, 『수리정온』들과 의기(儀器)들을 불사르게 하고, 이승훈은 ‘벽이문(闕異文)’을 작성해서 천주교를 배척하다. 최인길(마티아, 1763~1795)이 자신도 김범우와 같이 처벌해 달라며 형조를 찾았으나 10여일 옥에 갇힌 뒤 석방되다.

▶ 1월 30일(양력 3월 10일) 농은(農隱) 홍유한(洪儒漢, 1726~1785)이 경상도 순흥 고을 구들이 하이목(영주시 단산면 구구리)으로 옮겨 살면서 수계하다가 60세로 세상을 떠나다. 다블뤼 주교는 그의 『비망기(備忘記)』에서 홍유한에 대해 「1770년경 천주교에 관한 책들을 몇 권 보게 된 다음부터는 그 책들을 소리 내어 즐겨 읽곤 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즉시 이제껏 공부하던 책들을 모두 집어치우고는 천주교를 실천하는데 전념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도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규칙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정말 거의 없었다. 그는 단지 7일마다 축일(祝日)들이 반복된다는 것만 읽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매달 7일, 14일, 21일, 28일에는 세상일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prière)와 기구(oraison)하는 데만 전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홍유한은 이벽이 참여하였던 대강학(大講學)이 있기 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천주교 가르침을) 처음으로 실천하였던 사람으로 아마도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대건 신부도 1845년 파리외방선교회에 보낸 편지 「조선 천주교회의 탄생에 관한 개요」에서 ‘이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적 사물의 이치로 스스로 깨닫고, 가톨릭교회의 서적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이해하였으며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천주교 신자처럼 하느님을 공경하기 시작 했습니다.’라고 하다.

○ 추조적발 사건으로 문중 박해를 피해 서광수(徐光修, 1725~1786)가 5자(子) 유도(有道)와 함께 상주 상서면 배목이(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배목이)로 이주(移住)하다.

○ 안정복(安鼎福 호는 順菴 1712~1791)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글 『천학고(天學考)』와 『천학문답(天學問答)』을 쓰다.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만형의 처남 이벽으로부터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영세(領洗)를 받다.

▶ 4월 유하원이 왕에게 ‘천주교는 천(天)만 있는 줄 알고 임금과 아버지가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설로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의혹케 함이 큰물이나 짐승의 해 보다도 더하다.’며 서양 서적을 가지는 것을 금지 시키라고 주장하다.

▶ 가을 성직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조선 천주교회가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를 실시하는데 이 때 이승훈(베드로) 자신은 주교가 되고, 권일신(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이존창(루드비코 곤자가), 유헤검(아우구스티노), 최창현(요한), 흥낙민(루가), 정약전 등 10명의 신부를 임명하다.

-다음에 계속-



살림터 이야기

여수 밤바다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여수 밤바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 왔다. 가수들의 공연이 있었고 낭만포차라 부르는 길거리 음식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밤바다를 가득 채웠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밤바다는 아름다웠다.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면 유람선이 오색 불을 밝힌 채 나타나 뱃고동을 울리며 화려한 불꽃놀이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케이블카는 붉은색과 녹색의 불을 반짝이며 바다 위를 지나갔다. 시원한 바람과 달빛이 부서지는 여수 밤바다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여수는 아껴둔 여행지였다. 진작부터 가고 싶었으나 일부러 다음으로 미루며 가슴에 담아둔 곳이었다. 아름다운 물이라는 지명에서부터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다. 막연히 여수는 낭만이 흐르고 가슴을 축축이 적셔줄 감성의 도시일 것만 같았다.

2박 3일 동안 여수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오동도, 돌산, 엑스포공원, 이순신장군광장, 포차거리, 하멜 기념관을 보고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건넜다. 케이블카도 탔다. 그리고도 모자라 배를 타고 여수 바다를 여행했다. 육해공을 넘나든 관광이었다.

여수의 매력은 밤과 낮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있었다. 낮의 여수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바다는 아기자기하고 잔잔했으며 투명했다. 특히 거북선대교 아래 하멜 등대는 여행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사람들을 불렀다. 그곳에는 1653년 배가 표류하여 조선에서 억류생활을 하던 네덜란드 청년 하멜이 있었다. 그가 3년 6개월여를 여수에서 머물다 탈출한 바닷가에는 기념관이 들어섰고 그의 망향가는 빨간 등대로 남았다.

사람들이 밤바다를 좋아하는 것은 낭만 때문일 것이다. 칙칙 같은 어둠속을 비추는 등대의 불빛,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소리,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별빛, 멀리서 들려오는 뱃고동소리는 무디어 가던 감성을 자극한다. 밤바다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된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리움 하나 간직하게 만든다.

밤바다에는 내 젊음의 추억도 깃들여 있다. 20대에 친구와 배낭을 메고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영덕에서 칠포를 거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구룡포였다. 백사장에 텐트를 치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꿈꿨다. 노래를 부르고 햄릿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얘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비릿한 바다냄새와 귓가를 때리던 그 밤의 파도소리를 잊지 못한다.

살다보면 마음이 어수선할 때가 있다.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때 바다는 큰 위안이 된다. 잠시 생각을 내려놓기에는 바다만큼 좋은 곳이 없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과 끝이 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멈춰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만 바쁘고 앞서간다는 것이다.

기대대로 여수는 여행자의 마음을 보듬어주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고 했다. 바쁠수록 일부러라도 시간을 만들어 밤바다를 찾아 가볼 일이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네게 전해주고파 전할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에는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의 향기가 있었다.